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이기원, 김선우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열네번째>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마하반야바라밀
- 일시 : 불기 2548(2004)년 4월 17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묵산스님 약력

- ▶ 제주 원만암으로 출가
- ▶ 제주도 한림 광명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 인곡 대선사의 법제자
- ▶ 정릉 보림사 창건



4월 사찰환경 답사

적멸보궁순례

(정선 태백산 정암사, 영월 사자산 법흥사)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4월 18일(일)
- 출발지 : 수원포교당 입구 매향다리 앞 오전 7시
- 동참금 : 3만원
(중식/여행자보험/간식/사찰입장료 포함)

4월초

불기2548년(서기2004년) 4월 (통권제8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솔선수범

보현진열스님 / 감로향사 분향주

서구적 눈금에 맞추어 이른바 근대화라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엄청난 생활상의 변동을 겪으며 적응에 바빴다.

우리는 서구에서 100~200년 동안 이룩한 변화의 축적을 40~5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따라 닳아가면서 오늘날의 새로운 변환기까지 왔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약육강식의 시련과 함께 모두 제 몫 찾기 운동에 소리 높여가는 격동기에 놓여 있다.

그런 경향을 미국식의 신자유주의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그것을 미덕인 양 추종해서 점점 극심한 사회적 빈부차에 의한 계층간의 갈등과 불화를 자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무한 경쟁을 통해 힘 있는 자는 살고 나머지는 죽어가는 그런 패권주의의 야류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양적 미덕은 이미 사라져가고 매서운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으로 고통 받는 약자들이 참 많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서구화며 현대화이고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위정자들이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받들어 그 바라는 바를 실행하는 것이다. 민심의 향배는 다수결로 정한다. 대다수 민심이 바라면 그것을 좇아 키를 잡은 위정자들이 방향을 따라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잡은 이들이 자기네의 사익을 우선시 해 국익과 민심을 도외시키고 민의를 거스르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정도 문제지 위정자들의 행동이 지나치면 성난 바다가 배를 뒤엎듯이 민심은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상례였다. 과거 수많은 민란이니 민중 봉기니 혁거니...하는 핍박받는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배경에는 그토록 민심을 거스르는 누적된 정치적 파행이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흥망하게 하는 것은 위정자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들 생활 전반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일진데,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의 운영 관계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민생 모든 것의 결정적 관건은 곧 정치적 행위에 속하기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들은 하루도 정치적 관련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언제나 정치를 멀리하고 냉소하며 무관심하려는 듯이 했다. 그렇게 민심이 정치에 싫증을 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이들이 곧 위정자들이었으니, 그것은 국민을 바보스럽게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해도 따질 자들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민愚民 정책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첫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의 마음이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전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과거의 발상과 우민정책으로는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밝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식의 포화나 정보의 일반화 등으로 과거의 권위나 속임수는 이제 발불힐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만다. 점점 더 밝은 세상이 돼 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부정하면서 사익이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미 서구화로 말미암아 자본을 주의로 삼는 자본제 사회의 중심에 접어들고 있다. 모든 것이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가치화되는 물량物量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자본제 가치가 팽배해 가고 있는 이상, 역으로 계급과 계층에 따라 물량을 나누어 주어 재래의 가치를 유지케 하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정착돼 있다고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무리가 권력을 갖고 전횡을 일삼으려고 한다. 여기엔 윤리나 도덕은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에 의한 전횡만이 있을 뿐이다. 누구나 그런 권력에 기대어 서로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발버둥치는 정글로 변한다. 위에서 흐리면 밑에서도 흐리기 마련이다. 위에서 하면 아래서 따라 함은 만고의 진리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가?

또한 머느리가 시어미 욱하면서 따라 배운다는 속담은 그래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 저들의 만행과 교만이 곧 내 안에서 배태되고 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곧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사람의 얼굴이 없는 자본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벌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 함께 고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범한 상식을 잊을 수 있는가? 솔선수범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기
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향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5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6월 2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꿈에 그리던 미얀마 여행과 수행기

자성각 이 종 숙 / 위빠사나수행자

그 동안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주신 묘원 선생님과, 같이 수행하는 도우(道友)님들 8명이 함께 미얀마로 여행 겸 수행을 떠나게 되었다. 처음 7일간은 여행하고 18일간 쉼인 명상센터에서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제 미얀마에 여행과 수행을 다녀온 느낌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2003년 12월 3일 인천공항을 출발, 방콕을 거쳐 미얀마 수도 양곤에 오후 5시경 도착했다. 시내 어디에서나 그 모습이 보인다는 쉐다곤 파고다에 갔다. 이 탑은 99미터 높이의 황금 대탑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작은 탑들과 전각들이, 맑고 푸른 하늘에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과 어우러져, 과연 명성답게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다.



해가 지면서 황금 대탑에 서치라이트가 비쳐지자 탑은 낮보다 더 찬란한 황금색으로 웅장해져서 저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왔다. 탑 상층부에 우산 모양의 '티'라고 불리는 장엄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있다. 바람결에 '티'에 매달린 보석들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찰랑찰랑하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티' 중앙부분에 매달린 다이아몬드는 무려 75캐럿이나 된다. 모두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시에 의해 이런 '티'를 만든단다. 이 탑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여,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의 가장 큰 은행과도 바꾸지 않았다는 쉐다곤 황금 대탑이다.

그 다음날 양곤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바간에 도착했다. 바간의 드넓은 평원에 보이는 것은 탑들뿐이다. 200년 동안 4000여 기의 탑을 조성하였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2500여 기가 남아있다. 어떻게 12세기경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거대하고 많은 탑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탑 안에 들어가면 미로 같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사방팔방으로 거대한 크기의 불상들이 모여져 있다. 그 중에 한국스님이 훼손된 탑 하나를 맡아서 복원하여, 4면에 우리나라 부처님과 같은 모습의 불상을 모셔놓은 탑에 가게 되었다. 탑 입구에 한글 안내문이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의 절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 다음날 이 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 만달레이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10인용 배를 타고 이라와디 강을 건너 밍군 탑을 보러 갔다. 이 탑은 밍군 왕이 산보다 더 큰 탑을 세워 국민들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너무 혹사하여 구테타로 왕은 폐위되고, 탑의 입구를 만들다가 공사가 중단되어버린 미완성된 탑이다.

우리가 본 탑의 입구 한쪽 벽의 크기가 웬만한 산보다 더 컸다.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 머지않아 출입이 어렵게 될 것 같다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이 빚어내는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폭이 10Km, 길이가 22Km나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레 호수에 갔다. 그 호수를 5인용 쪽배를 타고 한바퀴 돌았다. 어떻게 알고 날아왔는지 우리 머리 위로 갈매기가 새소리를 내며 따라온다. 우리들이 던져주는 새우깡 같은 먹이를 잘도 받아먹고 또 배설물도 거침없이 쏟아낸다.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는다.

일레 호수에는 그물을 치고 그 위에 흙을 깔아 인공 배지를 만들어 토마토를 수경재배하면서 사는 수상 가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 수상가옥 난간에서도 땅에서처럼 잘 놀고 있었다. 조금 큰 아이들은 한발로 쪽배를 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신기한 모습이다.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돌아 올 때 한쪽편 산에는 달이 뜨고 반대편 산에는 해가 지면서 신비한 색조를 띤 구름과 맑고 잔잔한 호수의 물결과 거기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나는 원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이제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 만큼 실컷 보았다.

역시 자연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만나는 모든 대상을 편하게 해주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다. 나도 자연처럼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편안한 상대가 되고 싶다. 이제 이번 여행의 목적인 쉼인 명상센터에 도착했다.

우리 수행자들을 환영해주는 주지스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수행을 통해 아무리 나쁜 환경에 처해도 그곳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길 축원해 주셨다.

비록 이번 수행에서 수행자들의 목표인 열반까지 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평화롭고 행복하여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알아차림(사띠:sati)의 힘을 얻어가야 미얀마까지 와서 수행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주셨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 주시하여 안다)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 모두 쉼 없는 알아차림을 통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할 뿐이다. 많은 분들이 위빠사나와 만나는 계기가 되어 항상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경이
문고

경전강좌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도업스님
기간 : 2개월 과정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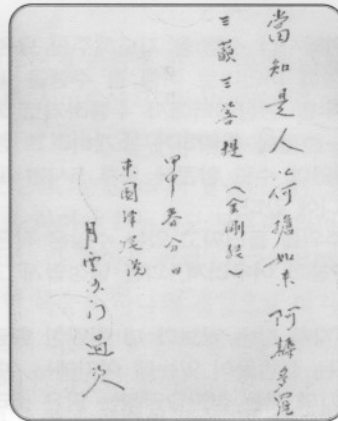
요가반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강사 : 오전 - 장순이 / 오후 - 문명순
기간 : 3개월 과정(90,000원) 모집시기 : 수시



법화경 독송 구국당

장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은 다
나와 같이 부처이건만,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인줄 모르도다.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월운스님

우리의 본래 이름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이다. 처음부터 부처로 태어났는데 부처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부처인 줄 모르다 보니 자신을 중생이라고 우기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스스로를 중생이라 고집하는 한 중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중생의 굴레를 벗지 못하면 중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부처인 줄도 모르고 중생의 굴레 속에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병고 액난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중생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러한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그릇된 이름과 집착만 없애버리면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본래 부처라고 우겨봐야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설령 잠시 본래 부처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금방 중생으로 돌아가 버린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부처임을 잊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자기가 부처임을 자각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취입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이겨낼 때 그날 비로서 이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교의 발판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다.

스스로가 부처인줄 모르고 중생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면 부처로 태어난 목숨이 결국은 중생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불교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안 된 것은 대다수 인원들이 여러 계층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 자신이 상당히 불교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인들이 내가 왜 불교 신자가 되었는지 그 물음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 놓고 시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뇌라 하더라도 알아야하고 이해해야하고 단 한구절이라도 자신하고 인연을 맺어야한다. 그것은 깨달음, 즉 해탈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듣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버티어 나가야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의 마음과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 중생도 부처이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이뿐이다.

즉, 한 마음 미혹하면 중생이고, 한 마음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말을 남기며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

법문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해 강사

권중서

H.P 011-9279-1401



선지순례

스리랑카의 불치사 순례기

감로행 윤 광 숙 / 본원 후원회원



꿈

같은 스리랑카 여행이 중반에 접어들어 가고 있을때 내 생애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캔디의 불치사순례는 잊을 수가 없을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시각은 저녁 무렵 땅거미가 지려면 아직 30분은 있어야 할 것 같은 여유롭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 군무를 하듯, 우리를 반기는 까마귀의 무리들이 머리위로 날개 접는 처르륵 처르륵 소리를 내며 마치 박수를 치듯 나뭇가지위에 앉았다가는 다시 나는 그 모습은 이 도시에서 만 볼 수 있는 장관이며 이국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흥조로만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속설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길조로 여겨 사람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넓은 정원을 지나 불치사 문 앞에 다다르니 가슴 설레이는 북소리가 등등등 울린다.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 나라 사원에서는 맨발을 벗어야 하기에 순서를 밟아 사원 안에 들어가니 환상적인 모습이 나를 반긴다. 장엄하달 수 밖에 달리 무어라 표현할까? 광마른 체구의 사미승존 되어 보이는 젊은 수행자가 어깨에 북을 메고 열심히 북을 친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일행을 반기면서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치는 것 같았다. 저녁 예불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는거라고 누군가 귀뜸을 해주었다. 절 안의 모습은 천정이 아주 높고 연꽃무늬의 단청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일행을 감동시키고도 남을듯했다. 삼면의 벽면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위쪽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시절 빼앗겼던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다시 이곳에 모셔지게 된 이유가 그림으로 너무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었다. 내가 그림에 조예가 깊었더라면 몇 배 더 행복 했을거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불전마다 사람들이 공양물로 바친 꽃공양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리랑카에서는 공양물중의 으뜸을 꽃공양, 향공양, 음성공양이라고 우리나라 스님이 운영하시는 사찰을 방문했을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가는 곳 어느 사찰에나 불전에 많은 꽃송이의 놓임을 볼 수 있었고 그 꽃들의 향이 중생의 온갖 죄를 정화시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놓았음일까? 그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였다. 거기서 나도 한 송이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별도로 법당이 있어 예불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계사에서 시주를 하여 모신 부처님이라고 가이드가 말해 주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기대를 갖고 따로 모셔진 부처님을 처음 뵈었을때 단순히 보이는 모습이 약간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친밀감이 들어서 잠시나마 아니했던 나의 마음을 말끔히 없애주었다. 저마다 준비해간 꽃들을 불전에 올리고 자리를 잡은 후 우리만의 조촐한 저녁예불이 시작되었는데 그 감동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 배워 익히던 목탁을 치며 집전을 보는 나는 감격과 떨림이 하나 되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식간에 지난 것 같다. 서투른 진행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시는 진철학 원장님의 역할은 나의 실수도 아름답게 빛내 주시듯 감사하게 끝이났다. 주의에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일행을 부러운 듯 주시하고 지켜보았으니 나는 'I'M SOUTH KOREA' 라고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 주었다. 사찰 후원으로 나와서 도반들과 함께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 캔디의 야경을 감상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내일 새벽예불을 드리기로 약속을 한 후 즐거운 저녁만찬을 들었다. 오랜만에 중국식당에서 즐기는 식사는 너무나 행복했고 맛이 있었다. 자는등 마는등 기상하여 다시 찾은 곳은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작은 장소였는데 불단에 고깔처럼 씌어놓은 하얀 바탕의 그 성스러운 "단" 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있고 너무도 소중히 간직하려는 그곳 사람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간 꽃을 "단"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된 영광을 부처님께 돌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렸다. 더 오래 있고 싶어도 밀리는 뒷사람들을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기에 가파스로 빠져 나왔는데 작은방 입구에 백일썸 되었을 아기가 부모와 함께 그 절의 스님을 친견하고 아기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으므로 부처님의 세례를 받고 아기 불자로 인정이 되는거라고 한다. 그 나라의 사찰 어디를 가나 쉽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종교가 생활이고 일상이라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것 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느긋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불국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제의 장소, 우리 부처님전에서 아침예불과 함께 천수경을 외우는 감격은 우리도반들 모두가 행복했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했을 것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경기도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이 화 정

생삼경살
감지탕

대표 박 애 숙

남문 팔달로 1가
TEL. 031)244-0777

호원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이 옥 자

031)297-3077/ 338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83



실미도 희생영가여! 離苦得樂하소서

천동 권 중 서 / 조계종 포교사

영화 한편이 권력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더럽게 감추어진 한 사건을 다시 역사를 바로 쓰게 한 일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앞 바다 실미도에서 벌어진 이야기 내용이야 영화를 통하건 사건뉴스를 통하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탈영병 또는 무장간첩, 무장괴한 등으로 불리어지며 원한을 품은 채 죽어간 군번없는 군인들, 군인으로서 말은바 직분을 다하여 특수 훈련을 시키고, 조국의 이익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왜 서로간에 총질을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며 의미 없이 죽어간 실미도 훈련 기간병사들이 모두 권력의 추악한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 게임은 언제 나 그러하였듯이 없었던 일로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그 잔인 권력자들은 잘먹고 잘살며 지금도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는 지도 모르겠다. 그 중 어떤 자는 세월이 흘러 목숨이 다하여 저승 무간지옥에서 그 죄 값을 치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군, 적군도 없는 실미도 희생영가원혼들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역사의 현장을 그저 유명한 영화의 촬영장소로, 또는 이곳이 그 고된 지옥훈련을 한곳쯤으로 여기고 관광차, 유람차 실미도를 오고가니 의미 없이 죽어간 실미도 희생 영가들은 더 더욱 답답함에 눈을 감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기불교문화원은 희생 영가들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한 국토에 태어난 인연도 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한 시대를 살아가는 共業중생으로서 실미도 희생영가의 원혼을 달래주고 극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이 모아지자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들은 실미도 희생영가들이 이승의 원한을 풀고 고통이 없는 저 극락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지난 3월21일 실미도 사건의 현장을 찾아 실미도 희생영가 천도재를 조출하지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올렸다.

희생영가를 맞이하여 음식을 올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 드리고 나고 죽는 것 또한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과 같아 집착의 대상이 아니니 영가들께서도 원한을 풀고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대한민국에 태어난

장부였음을 기억하시어 우리나라의 국운은 융성하여 남북이 통일되어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극락세계에서도 기도하여주시길 것을 발원하였다.

이러한 경기불교문화원 참여 가족의 간절한 발원에 다보, 묘색신, 광박신, 이포외, 감로왕여래의 가피 충만하여 빛으로 나투시고, 감로왕보살님이 실미도 희생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심에 서방극락교주 아미타여래와 관음, 세지보살님이 희생영가를 맞이하니 봄바람도 감응하여 당과 번을 흔들어 잘가시라 화답하였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실미도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도록 정부와 군부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 들 (불기 2048(2004)년 3월 금액 1,228,740원)

강영진	강재수	구광국	권승하	권중서	김기현	김대성	김말수
김미월	김병옥	김순자	김영동	김영희	김의순	김준옥	김준호
김향숙	박선현	배민한	박청용	심화식	윤기숙	안영찬	양황경
양정례	양준영	윤영무	이기순	이기원	이대곤	이병일	이종숙
이상범	이선우	이영옥	이옥자	이임성	이종옥	이화순	염규용
윤광숙	최정자	장옥훈	장용집	정무근	조병희	조창윤	주영월
진철희	도건영	최귀미	최명길	최정자	한경숙	현병국	홍인숙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모집시기 : 수시
강사 : 황영채 3개월(60,000원)

재미있는 역학교실 모집

개강일 : 기초반 · 전문반 - 6월 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보현 진열(철학박사)
기간 : 12주(100,000원)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세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월운스님 초청(열세번째) 열린 법회가 지난 3월 20일 “법화경 독송구국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경기불교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지난 3월 20일 경기불교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 및 새봄을 맞이하여 작은 음악회(소프라노 김혜은, 피아노 이정은, 불자가수 문명하, 한국무용 이순자)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하신 많은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여러번의 앵콜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실미도 희생영가 천도법회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들은 실미도 희생영가들이 이승의 원한을 풀고 고통이 없는 저 극락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지난 3월21일 실미도 사건의 현장을 찾아 실미도 희생영가 천도재를 조출하지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올렸으며, 돌아오는 길에 하나개 해변과 국사봉을 둘러보고 국내 대표적 선원 중 한 곳인 인천의 용화사(용화선원)를 둘러 정성스런 공양기도를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 제3회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

3월 20일 오후2시에 경기불교문화원대법당에서 제3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보고, 금년도 예산 및 일반 사업승인, 문화원 운영규칙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입	차년이월	회 비	불전금	강좌비	사찰답사	광고비	교재판매금	기타수입	총수입합계
	792,480	38,029,200	5,006,910	14,363,550	7,185,000	1,480,000	718,000	8,147,370	74,930,030

지출	인건비 및 운영비	회보	법회비 및 행사사업비	사찰답사	교육사업비	총지출합계	잔 액
	49,912,760	3,979,800	12,237,150	6,743,000	2,444,260	75,316,970	405,540

4월 행사 안내



●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6월 19일(토)~25일(금) (6박 7일)
- 순 례 지 : 중국 오대산
- 일 정 : 수원→인천국제공항→북경→만리장성→오대산→현공사→운강석굴→구룡벽→보제사→영응사→현통사→탑원사→수상사→백마사→용문석굴→진시황릉→화청지→대안탑→서안성벽→서안→인천국제공항→수원(호텔개숙)
- 접수마감 : 6월 1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 계약금 : 1인 20만원
- 문 의 : 경기불교문화원 용민숙 간사 031) 251-1083

● 초파일 연등 접수합니다.

- 불기 2548(200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1인당 3만원에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연꽃 무료배부

이땅에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연꽃을 무료배부하오니희망자는 본원에 연락바랍니다.

● “100인에게 듣는다” “사찰환경답사”안내는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다도기초반

3개월 60,000원
강사 : 윤영예
매주 화 오전 10시

노래 교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강사 : 김혜은(소프라노)
기간 : 3개월과정(60,000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최종선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월 12일 개강
	위빠사나	황영채	20명	3개월 6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월개강
	경전강좌	도업스님	30명	2개월 60,000원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월개강
문 화 강 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3개월 10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5월개강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90,000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월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3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월개강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부,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월개강
			20명	12주 100,000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5월개강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2시	초, 중등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수시
	연극 아카데미		20명	4개월 100,000원	연극아카데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월개강

■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